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15호 (2013-45) 발행일 : 2013. 11. 15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여성 경제활동 현황, 결정요인 및 효과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현황은 여전히 'M'자형을 그리고 있음.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여성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일수록, 영유아가 없을수록 경제활동 확률이 높게 나타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전문직 여성의 경향률이 높고,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낮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산층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조정하고, 취업
맘 친화적인 보육정책 재편이 요구됨



여유진
사회통합연구센터장

1. 여성 경제활동 현황

■ 최근 여성과 관련된 두 가지 발표가 본 내용과 관련하여 시사적임

○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를 차지한 것¹⁾

- 경제활동참가, 교육수준, 건강,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하위 범주 중 경제활동참여의 성격차는 118위로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역할

1) World Economic Forum(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다른 하나는 여성 · 문화네트 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²⁾

- 고통지수의 평균은 3.33점으로 지난해(3.04)에 비해 0.29점 상승

○ 이는 최근 10여년 간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 사회적 노력이 경주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높은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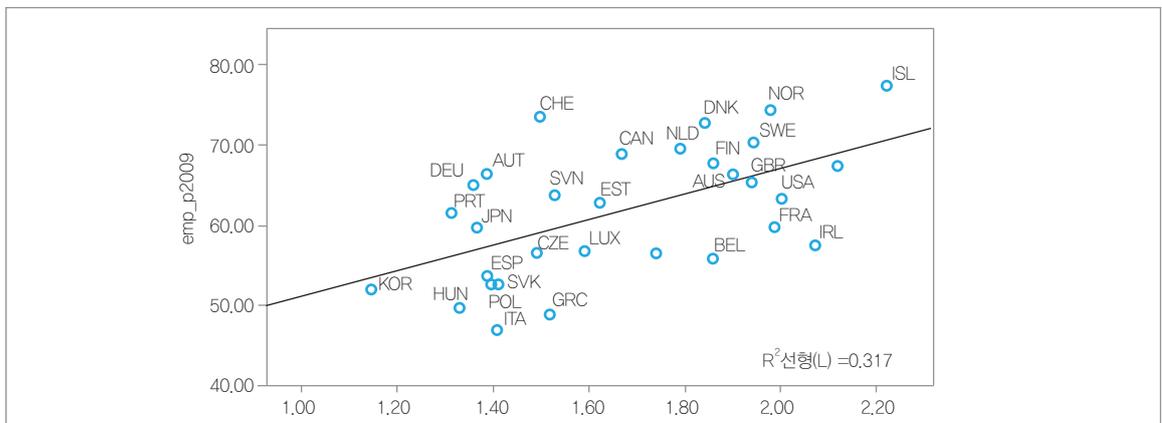
■ 전형적으로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온 유교나 가톨릭 전통이 강한 나라들의 여성 경제활동은 명시적 · 암묵적으로 제약을 받아왔음

○ 이에 비해, 개인주의와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북유럽국가나, 그보다는 덜하지만 자유주의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육의 사회화, 일-가족양립정책,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정책, 페미니즘 운동 등에 의해 고무되어 왔음

- 그 결과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 · 질적 특성은 복지국가의 차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임

- 더구나,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 역시 높고, 여성고용률이 저조한 나라에서 출산율 역시 낮은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OECD 주요국에서 둘 간의 상관관계는 0.317)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2009년)



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제외
원자료: stats.oecd.org(다운로드: 2013/11/03)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1년 54.9%로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61.8%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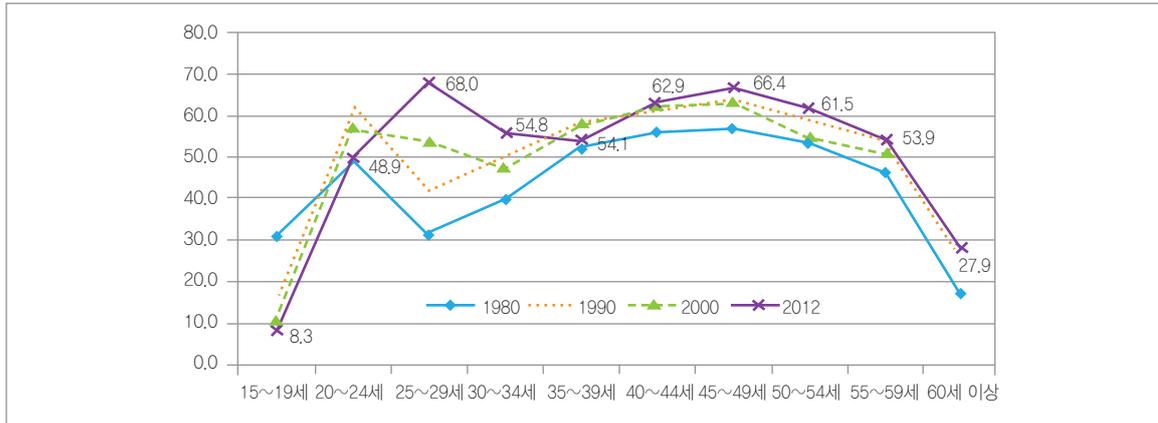
■ 한국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을 보인다는 것

2) 한겨레신문(2013.10.28, 일자). “워킹맘들 작년보다 더 고통스럽다.”

○ 최근 들어 M자형이 다소 약화되는 동시에 연령대도 다소 늦춰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30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M자형이 유지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화로 인해 출산연령이 늦춰진 결과가 주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원자료: www.kosis.kr(다운로드: 2013/06/12)

○ OECD 국가에서 명확한 M자형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이는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초래될 가능성 높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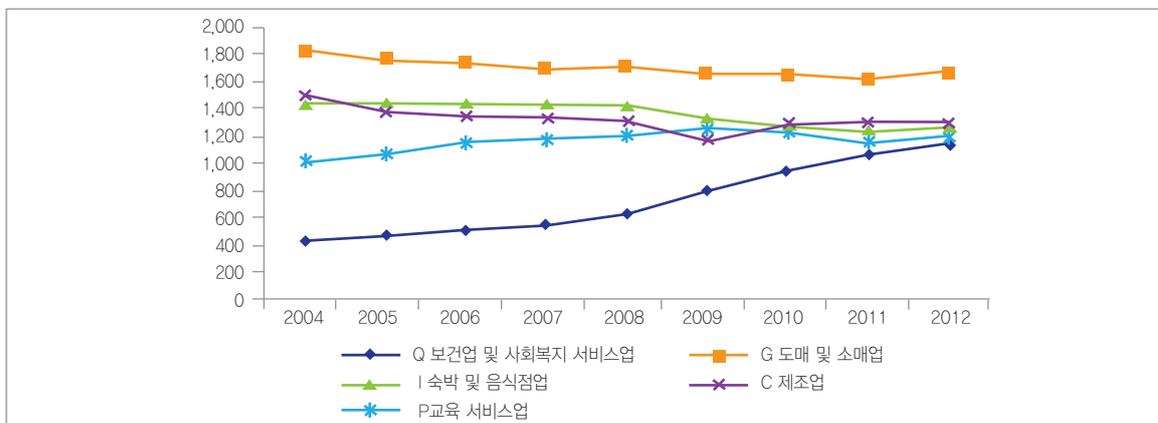
■ 한편, 취업 여성의 산업별 · 종사상 지위별 · 근로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2006년까지만 해도 502천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현재 1,138천명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 이는 최근 장기요양보험,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로 보임
- 실제로, 여성이 대거 진출해 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최근 몇 년간 여성 취업자 수가 정체상태이거나 약감 감소한 데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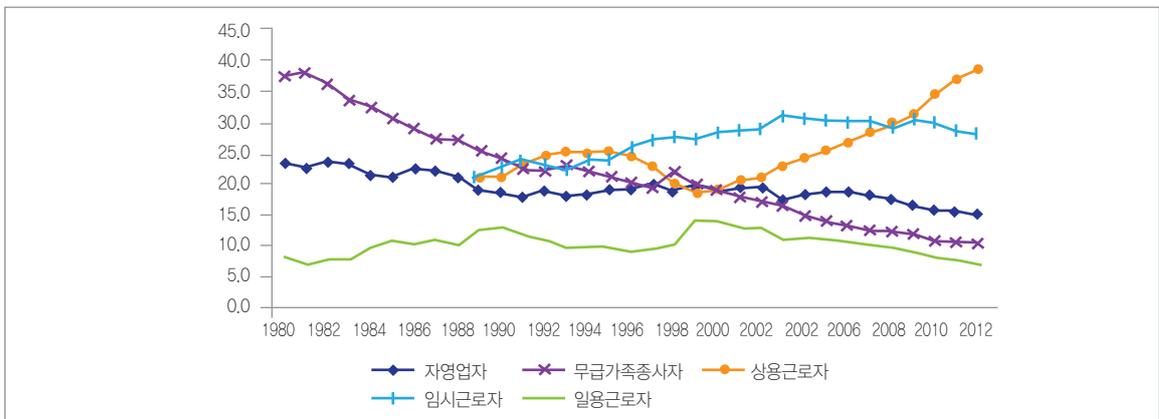


원자료: www.kosis.kr(다운로드: 2013/06/13)

○ 한편, 남성의 경우 지난 20년 이상 종사상 지위별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데 비해, 여성의 경우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음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감과 이에 비례하는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증가임
- 자영업 비중이 서구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변화는 서구 복지국가의 '남성가장-여성주부' 형 복지국가에서 '맞벌이' 형 복지국가로의 변화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양상으로 주목할 수 있음
- 또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여성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을 앞선 결과와 결합시키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상당 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이동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그림 4]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원자료: www.kosis.kr(다운로드: 2013/06/13)

○ 여성은 전체 임금근로자(7,618천명) 중 약 40%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속해 있음. 이는 남성 비정규직 비율 26.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 취업시간 46시간보다 약 8시간 (정규직의 83%) 짧지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1.2만원으로 정규직 임금(253.3만원)의 55.7%에 불과함

<표 1> 성별 비정규직 분포(2013년 상반기)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남	여
정규직	12,012	7,478	4,534
비정규직	5,732	2,648	3,084
- 한시적근로자	3,331	1,609	1,722
- 시간제근로	1,757	473	1,285
- 비전형근로	2,208	1,140	1,068
* 일일	791	531	259
* 파견	198	82	115
* 용역	683	375	308
* 특수형태	557	191	366
* 재택가내	66	6	60

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표(e-나라지표).

2. 여성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 여성 경제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 여성 경제활동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요약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여부				소득계층					유배우						
	포함		비포함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전체		25~39세		40~54세		
연령(25~39세=0)																
40~54세	+		+		-		+		+	+	**	-		-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	*	+	**	+	**	+		+	+		+	**	+		
전문대졸 이하	+	*	+	***	+		+	*	+	+		+	**	+		
대졸 이하	+	***	+	***	+	*	+	**	+	+	**	+	**	+		
대학원 이상	+	***	+	***	+		+	***	+	*	+	***	+	***	+	**
유배우(무배우=0)	-	***	-	***	-		-	***	-	**						
최근직장고용형태 (비정규직=0)																
정규직	-	**	-	*	-		-	*	-	-	*	+		-	***	
고용주및자영자	+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기타(비해당)	-	*	-	*	+		-	*	-	***	-		-	***	-	***
0~2세 아동유무	-	***	-	**	-		-	***	+		-	***	-	**	-	
3~5세 아동유무	-	**	-	*	-		-	***	+		-	*	-		-	
6~9세 아동유무	-	***	-	***	+		-	***	-	*	-	***	-	*	-	*
노인유무	+	*	+	*	-		+		+	**	+	***	+	*	+	**
장애인유무	-	***	-	***	-	**	-	**	-		-	*	-		-	
경상소득 (본인소득제외)	-	***	-	***							-	***	-	***	-	***
소득제공	+	**	+	***							+	***	+	**	+	*

원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연도: 2011년)

- 일반적으로, 소득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단, 소득을 통제하지 않고 계층별로 분석할 경우 이는 주로 중산층 내에서만 유효하게 나타남
- 모든 분석모형에서, 남성배우자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혹은 현재 정규직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규직이었던 여성이 경력단절 후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 현실, 여성의 선호와 노동 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간의 괴리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배우자가 있는 40~45세인 여성에서 이 변수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함
- 가구 내에 케어해야 할 아동이나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은 여성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소득계층별 분석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아동의 유무가 경제활동 참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가구경제상 아동 유무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전문직 등 안정적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가사와 양육의 외주화나 조부모 양육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가구 내에 노인이 있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소득과 소득제공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소득은 음의 효과, 소득제공은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형태를 보인다는 것, 즉 여성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차츰 여성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일정 소득을 지나면 다시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형태를 의미함

3. 여성 경제활동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효과

■ 가구 소득계층별로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함

-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19.3%에 불과한데 비해,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48%에 이룸
-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일하고 있는 경우는 상용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모수를 취업자로 했을 때)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37.8%에 이룸

○여성의 비경제활동비율이 소득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로, 저소득층 여성의 평균적인 본인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제외할 경우 여성의 소득은 고소득층 여성이 가장 높은 2,135만원, 저소득층 여성 2,045만원, 중산층 여성 1,729만원 순임

〈표 3〉 가구 소득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상태 및 가구경상소득

(단위: %, 만원/년)

구분1	구분2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정규직	비경활	19.3	35.6	48.0	35.4
	상용직	29.1	24.9	24.2	25.5
	임시직	26.3	20.6	12.5	19.8
	일용(자활)직	11.5	6.7	1.8	6.5
	고용주및자영자	10.1	6.1	6.6	7.0
	무급가족종사자	2.3	5.2	6.1	4.8
	실업자	1.5	0.9	0.8	1.0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소득	가구경상소득	2,722	5,196	10,319	5,901
	가구가처분소득	2,537	4,771	9,173	5,356
	본인소득	1,701	1,154	1,151	1,258
	본인소득(비경활자제외)	2,045	1,729	2,135	1,879

원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연도: 2011년)

■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과 계층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본인소득을 제외했을 때 57.8%이던 중산층 비율은 여성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66.4%까지 증가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 경상소득을 산출할 경우, 이를 제외했을 때 저소득에 속하던 여성 중 44% 정도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섬
 - 여성 소득을 제외했을 때, 중산층이던 여성 중 3.8%는 저소득층으로 하향이동, 8%는 고소득층으로 상향이동함. 고소득층이던 여성의 약 30% 정도는 중산층으로 하향이동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과 계층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 여성 경제활동으로 인한 계층 변화 (단위: %)

구분	본인소득 제외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19.2	57.8	23.0	100.0
본인소득 포함	저소득층	54.9	3.8	0.0	12.7
	중산층	44.0	88.3	29.9	66.4
	고소득층	1.1	8.0	70.1	21.0
	계	100.0	100.0	100.0	100.0

원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연도: 2011년)

4. 정책적 시사점

- 현정부의 핵심적 국정목표 중 하나는 ‘고용률 70% 달성’(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임
 - 이러한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친화적인 정책적·기업적·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동향을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대신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는 서비스·판매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낮은 데 비해, 현재 비경황 여성은 상대적으로 의중임금이 높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즉, 공급되는 일자리(vacancy)와 잠재적 일자리 수요(비취업여성) 간의 불일치가 심할 수 있다는 것임
 - 여성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노력과 아울러,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경황 여성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일자리 질,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확대가 중요함

○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됨

-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제의된다 하더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히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들이 취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음. 앞선 결과에서도 영유아의 존재는 -계층별 분석을 제외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는 변수 중 일관되게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됨
- 보편적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취업맘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실제로,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3시간을 맡기든 9시간을 맡기든 보육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취업맘 자녀를 꺼려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영아에 대한 안전대책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 9시간 이상 보육을 원하는 취업맘은 많으나 장시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은 떨어짐
- 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맘 친화적인 보육시스템 정비가 시급함. 특히, 수요자 그 중에서도 취업맘 중심의 보육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 및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함

집필자 | 여유진 (사회통합연구센터장) 문의 | 02-380-8181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